



신의 성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까?

성인경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진단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베드로후서 1:8,9) 과일이거나 소출이 없는 농부가 실패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서 용서 받은 사람인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5-7에서 믿음(faith), 덕(virtue, goodness), 지식(knowledge), 절제(self-control), 인내(perseverance), 경건(godliness), 우애(brotherly kindness), 사랑(love)의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열매를 “신의 성품(divine nature)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신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22-23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기본덕목(cardinal virtues)’이라 하여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를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처럼 아홉 가지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네 가지도 아니라 여덟 가지 덕목을 이야기 합니다.

여덟 가지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1) ‘믿음’(πιστις, pistis, faith)은 어원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동의 혹은 확신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는 말씀처럼,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에베소서 2:8,9) 그러므로 믿음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요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로마서 5:1, 히브리서 11:1, 유다서 1:20)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2) '덕'(αρετε, arete, virtue)은 어원적으로는 '남자다움', '용맹', '탁월함(excellence)', '칭찬', '미덕'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며, '도덕적 탁월성' 혹은 '도덕적 선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베드로전서 2:9)을 전파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도덕적 탁월성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덕'은 유교 문화권에서 말하는 '밝고 옹고 빛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스하여 사람으로서의 길을 행하는 마음이나 짓'을 '덕'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αρετε, arete'는 '의, dikaiosunh, dikaiosune'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한다."(Bauckham, Green)고 합니다. 반면에 종교개혁가 존 칼빈(John Calvin)은 '덕'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정직하고 질서가 잘 잡힌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해석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말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한 것이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빌립보서 4:8)

3) '지식'(γνωσει, gnosei, knowledge)은 어원적으로는 '아는 것', '학식', '학문'을 말하며, '기독교에 대한 보다 깊고 완전한 지식',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와도 다르며 '물리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지식'과도 다른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2절의 '앎, επιγνωσις'은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precise and correct knowledge)'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 속한 지식' 혹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John Calvin)은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득적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자발적으로 배워야 하는 지식입니다. 패커(James I. Packer)도 그의 명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고지선의 지식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 년 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랐습니까?

4) '절제'(engkrateian, self-control)은 '자기 통제', '금욕', '삼감(continance)'이라는 말인데, 자신의 기분이나 욕망이 방종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래 '절제'는 헬레니즘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당시의 성적 방종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나친 육체적 욕망의 방종과 이방 세계의 동성애나 불륜과 같은 부도덕한 성생활과는 다른 열매로서, 바울, 베드

로 사도가 둘 다 절제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네슨(Philip D. Kenneson)은 “이 열매야 말로 타인지향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¹⁾

그러나 케네슨(Philip D. Kenneson)은 말하기를,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중독과 극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갖 중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나만 왜 절제해?”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 반대로 극단적인 극기 프로그램을 하면 절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중독도 아니고 극기도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5) ‘인내’(huipomonen, patience)는 ‘참는 것(steadfastness)’, ‘한참 동안 지속하는 것(constancy)’, ‘오래 참은 것(long-suffering)’을 의미하며, 오래 참음으로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캄이라는 사람은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킨다.”(Bauckham)고 했습니다. 즉 인내는 세상의 압박에 저항하는 능력인데, 환난에 직면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서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와 생산성을 최고로 치는 문화 그리고 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섹스, 스마트폰 열어보는 것, 영화, 식욕, 돈, 명예? N. T. 라이트는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인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이다.”(Nicholas Thomas Wright)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때 마음에 드는 새 책이 나오면 안사고는 못 배겼습니다. 대학 나닐 때는 밥을 한 끼를 굶고도 책을 사 봤습니다. 요즘은 그 점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경건’(ευσεβεία, yoosebeia, godliness)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으며, 어원적으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는 태도(godly life)’를 뜻합니다.(cf. 베드로후서 3:11)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때, 간혹 목에 힘을 주거나 엄숙한 것을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문의 문자적인 뜻인 ‘공경하고 삼가 조심 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경건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다.”(이상환, ‘경건에 대한 요한 칼빈의 견해’,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우리 시대의 문제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5)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 혹은 경건의 열매는 어디에서 올까요? “경건은 내 속에 있는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생긴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로서 경건의 능력과 열매를 얻게 된다.”(서용민, ‘경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구: 딤후전 3:16절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 ‘형제 우애’(φιλαδελφία, fila-delfeeah, brotherly love)는 ‘형제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라델피아(philadelphia)’란 말은 본래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으나, 초대 교회에

1) 케네슨(Philip D. Kenneson, 열매를 맺다, life on the Vine, 새물결플러스, 336-337. 케네슨은 이 책에서 ‘절제’란 열매는 ‘무엇을 삼가 한다.’고 할 때의 그 ‘삼감(continentine)’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타인지향성으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Bauckham)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형제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주 만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의 권력을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사도행전 2:42-47)

여러분은 형제 사랑을 잘 하십니까? 한 번은 제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발 냄새까지 맡으며, 속내의도 같이 빌려 입을 수 있는 사랑이 형제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발 냄새도 같이 맡으며 잘 수 있고 속내의도 서로 빌려 입을 수 있는데, 지갑이나 카드까지도 서로 빌려 씩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말하더군요.

8) ‘사랑’(αγαπη, agape, charity)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비로운 마음이며, 변치 않는 한결같은 애정이며, 남을 위해 고생하는 희생정신이며,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고 한 것처럼, 사랑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열매이며, 가장 숭고하고,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실 모든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혔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된 기독교인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문제는 최고의 덕목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잡초는 1)자기 혼자서도 잘 사는 독립주의, 2)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3)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거래와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물질주의, 4)인간관계를 계약과 약속 관계로만 생각하는 법률주의 등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크게 맺혀지지 않는다면 이 중에 어느 것 때문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1)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냄새나는 열매 혹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배나무에 좋은 배가 달리지 않으면 아예 아무 배도 안 달립니까 아니면 썩은 배만 달립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약 좋은 열매가 안 맺히면 썩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1:4)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욕 때문에”라는 말은 ‘욕망이나 갈망, 동경, 특히 금지된 것을 바라는 나쁜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몰락, 황폐, 부패, 멸망,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5, 갈라디아서 5:19,21, 로마서 8:13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 혹은 “악한 행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음란 sexual immorality, 더러운 것 impurity, 정욕(정상적인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lust, 악한 욕망 evil desires, 지나친 욕심 greed, 음행, 방탕, 우상숭배 idolatry, 마술 witchcraft, 원수 맺는 것 hatred, 다툼 discord, 시기 jealousy, 화내는 것, 당파심,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drunkenness, 흥청대며 마시는 것(놀고먹는 것) orgies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

습니까?

2) 신의 성품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장 숭고하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faith), 덕(goodness), 지식(knowledge), 절제(self-control), 인내(patience, long-suffering), 경건(godliness), 형제 우애(brotherly kindness), 사랑(love) 중에 어느 것이 잘 영결어가고 있습니까? 본래 열매가 맺힐 때도 처음부터 큰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조그만 한 열매가 맺히다가 점점 커서 나중에는 커다란 열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순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지식과 인내, 덕, 절제, 경건, 사랑, 형제우애 등 무순으로 들쭉날쭉 자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벵겔(Bengel)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신의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각 덕목은 다른 덕목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발전된다. 이러한 덕목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신의 성품은 한꺼번에 맺히기도 하고 하나씩 맺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씩 맺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1:8)이라는 말은 "ταυτα, these things"라는 말인데, '이것들', '그들', '저것들'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이 같은 것들", τοιούτων, such as this, 갈라디아서 5:23)이라고 쓴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N. T. 라이트는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중 한 두 가지를 배양/재배 하는 것으로 과수원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령이 일하시면 열매의 아홉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독립된 모습을 띠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324)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신의 성품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트(N. T. Wright)의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한두 가지 과일부터 재배에 성공해야 좋은 과수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일하시면 한꺼번에 모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겠지만, 한두 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독립된 맛을 내며 자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일 기본 덕목들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싶으면 모든 기본 덕목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줄줄이 맺힐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씩 하나씩 맺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4) 성령의 열매는 신령한 능력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맛있는 사과 하나를 맺는데도, 물과 태양 그리고 온갖 미네랄이 있어야 하듯이 (요즘 어떤 사람은 한약도 먹고 금가루도 먹인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1: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기한 능력(qeiva" dunavmew)"은 '신령한 능력'을 말

하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영생’을 암시하며,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도덕적인 생활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셨다, dedwrhmevnh, dedoremenes”는 말은 ‘무료로 이미 주었다, has given freely’라는 말입니다. 즉 신령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공짜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12에서 “성령에 빚진 자라(we are debtors by the Spirit)”는 말은 ‘성령에 매여 산다.’는 말이며, ‘성령에 붙잡혀 산다.’는 말이며, ‘성령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 나쁜 행실을 이기려고 할 때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로마서 8:13), 2)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로마서 8:15), 3)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로마서 8:18-25), 4)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로마서 8:26)²⁾ 성령 없이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5) 신의 성품은 가만히 있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맺혀집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make every effort, NIV)”, (1:5), “사랑을 더하라(and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1:7),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열정적으로(be all the more eager to make your calling, NIV)”(1:10)라는 말이 세 번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의 성품이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사랑을 더하라(공급하라)(1.5-7).” “공급하라(to supplement)”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하여 진보해 가야함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³⁾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공급하라.(you make every effort to supplement)”라고 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노력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13에 서 나쁜 행실을 “네가 죽이라(you put to death)”고 한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신의 성품이 일

2) 8: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운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가 고난이 오니까 내가 약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이다.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연합한 것이다. 이때 성령은 우리의 연합함을 아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고난이 오고, 그러면 인간은 두려워진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영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너가 지금 어리석고, 지금 바보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이다. 8:29절 이후는 어떻게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다.(에스라성경연구원 백대운 교수 강의록에서)

3) “공급하라(to supplement)”는 말은 본래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무대에 쓸 공연비용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한다(Green, Blum). 만약 무대에 오페라나 연극을 올리면서 공연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명작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연자들로서 최선을 다해 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increasing).”(1:8)고 약속했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도록 하실 것임을 시사한다.”(Bauckham)

상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패커는 “성령의 열매들이 습관이 되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없다.”(J. I. Packer)고 했는데, 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6) 성령의 열매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맺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아’(dia; th^u ejpignwvsew”, through our knowledge of him).”(1:3),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1:8) 여기에서 “앎”, “알기에”라는 말은 “ejpivgnwsiς, epignosis”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식별’, ‘인정’, ‘승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한 바른 선택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 “마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각종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로마서 12:2-15:16) 라이트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을 것이고, 독단적인 규율을 좇는 맹목적인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다. (미덕의) 열매는 마음과 의지와 의식적인 선택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맺히지 않는다.”(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329)

7)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인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매우 인간적이며 크게 세 가지 인격적인 열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믿음, 덕, 지식은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의 열매처럼 보이고 둘째, 절제와 인내는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관계의 열매처럼 보이고, 셋째, 경건, 우애(형제 사랑),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이 모든 열매들은 종교적인 열매라고 보기보다는 인격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열매들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gifts)들도 매우 인간적입니다. 특히 말하는 은사인 구별, 권면, 독신생활과 같은 은사들은 인간적인 평범한 일상생활의 경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이 죄로 오염된 인간성들이 회복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인간성’ 혹은 성령은 전인격적(全人格的)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⁴⁾

그러나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기독교를 ‘인간화의 종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양 있는 인간이 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둘째, 기독교를 ‘자아상실의 종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성이나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기부인(self-denial)’은 적극 권하지만 결코 ‘자기파괴(self-destroy)’나 ‘자기대체(self-replacement)’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성품과 미덕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54)

8) 신의 성품을 맺도록 습관을 길들이는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N. T. 라이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품은 세 가지에 의해

4)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9 가지 열매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의 열매이고, 둘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의 열매이고, 셋째,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관계의 열매이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인간의 인격과 상관이 있는 열매들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cf. Ranald Macaulay & Jerram Barrs, Being Human, pp.63-67.

변화된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그 단계들은 제2의 천성, 곧 습관이 되어야 한다.”(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63) 그러면 어떻게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단계에 대해 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충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활동과 실천의 순환 속에 사로잡힐 때 그 미덕이 생긴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처럼, 페달과 핸들과 브레이크를 모두 작동시켜야 하고 균형을 잡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실천으로 빚어진 성품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 본보기, 공동체,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미덕이 생긴다.”(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428,429) 그러나 라이트의 견해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인위적이며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맺는 말씀

여러분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믿음(faith), 덕(virtue, goodness), 지식(knowledge), 절제(self-control), 인내(perseverance), 경건(godliness), 우애(brotherly kindness), 사랑(love) 중에 어느 것이 크게 맺히고 어느 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기를 기도합니다.